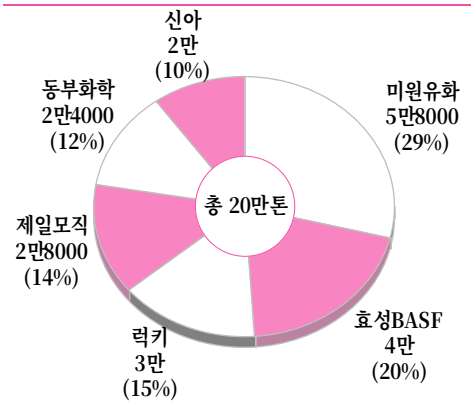
<폴리스틸렌 · EP>

수요산업 호황으로 "함박웃음"
원료가 안정이 지속성장의 열쇠

94년 국내 스틸렌제품 수요는 약 7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 스틸렌 시장은 94년 2/4분기부터 국내외 수급여건이 국내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되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자국 수요증가로 수출여력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전자 · 자동차 등 국내 연관산업의 활황 및 중국 · 동남아국가의 경기호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기업들의 정기보수가 2/4분기에 집중돼 공급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EPS 공급현황 (단위 : M/T)



국내스틸렌계제품수급현황단위: 1000M/T, %)

구 분		1993		1994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SM	생산	1,244	2.4	1,276	2.6
	수입	131	▽25.1	120	▽8.4
	내수	1,039	8.0	1,133	9.0
	수출	350	▽17.5	253	▽27.7
PS	생산	740	7.1	802	8.4
	수입	28	100	26	▽7.1
	내수	485	5.7	518	6.8
	수출	200	10.3	310	6.0
ABS	생산	334	13.2	373	11.7
	수입	5	194	4	▽20.0
	내수	184	16.5	202	9.8
	수출	152	12.6	175	15.1

PS의 용도별 수요현황 (단위: M/T)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생산	257,383	267,187	3.8	256,000	▽4.2	267,000	4.3
수입	13,034	13,830		26,000		27,000	
계	270,417	281,017	3.9	282,000	0.3	294,000	4.3
전기 · 전자	92,400	97,000	5.0	99,000	2.1	106,000	7.1
TAPE	73,400	74,500	1.5	74,000	▽0.7	74,000	0.0
SHEET	45,100	50,650	12.3	50,000	▽1.3	51,000	2.0
요쿠르트	18,400	18,600	1.1	19,000	2.2	20,000	5.3
잡화및기타	41,117	40,267	▽2.1	40,000	▽0.7	43,000	7.5
계	270,417	281,017	3.9	282,000	0.3	294,000	4.3

이와함께 최근에 발생한 각종 재해 등 비정상적 요인에 의한 공급차질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의 가뭄으로 인한 일부시설의 가동중단 내지 가동을 감축한 것이 한 예이며 미국 · 이태리 등 주요국 석유화학시설의 잇단 화재나 폭발사고도 공급차질의 한 원인이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95년 PS 수요 57만5500톤 달할 듯
국내 스틸렌계 수지 수요는 PS가 90년 40만3700톤(EPS포함), 91년 43만700톤(EPS포함), 92년 45만

4300톤(EPS포함), 93년 48만4000톤(EPS포함)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94년에는 53만3000톤(EPS포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틸렌계 제품 수급현황 (단위: 1000M/T, %)

구분	회사명	1993					
		생 산		판 매			
		수량	가동률	내수	로칼	직수출	계
SM	동부화학	185.5	88.3	135.6	38.2	14.7	188.5
	대림산업	122.3	101.9	21.1	34.9	68.8	124.8
	럭키	304.0	96.7	237.5	3.0	67.8	308.3
	유공옥시	267.0	105.5	58.3	99.4	112.6	270.3
	현대석유화학	128.0	102.4	42.6	84.7	0.2	127.5
	삼성종합화학	236.3	98.5	53.2	106.2	80.2	239.6
	계	1,243.7	548.3	548.3	366.4	344.3	1,259.0
PS	미원유화	184.0	69.4	81.5	29.8	76.1	187.4
	효성바스프	145.3	88.1	45.8	38.3	65.2	149.3
	신아	36.0	60.0	26.8	1.0	7.5	35.3
	럭키	133.5	95.4	45.8	38.3	47.9	132.0
	동부화학	104.0	77.1	34.2	19.7	51.9	105.8
	제일모직	137.0	85.6	44.3	32.0	60.8	137.1
	계	739.0	80.0	278.4	159.1	309.4	746.9
ABS	미원유화	66.7	95.3	20.4	5.8	38.2	64.4
	럭키	141.5	76.5	51.6	31.0	59.0	141.6
	신아	26.8	76.6	8.0	1.0	18.4	27.4
	제일모직	70.1	116.8	21.1	21.8	27.7	70.6
	효성바스프	28.5	95.3	7.1	4.2	15.5	26.8
	계	333.7	87.8	108.2	63.8	158.8	330.8

1994.상반기					
생 산		판 매			
수량	가동률	내수	로칼	직수출	계
108.1	103.0	71.9	25.5	11.0	108.4
74.2	123.7	23.0	16.1	34.7	73.8
169.9	103.0	128.2	1.8	41.7	171.7
125.9	99.5	30.8	50.4	47.1	128.3
58.1	93.0	20.7	40.0	2.0	62.7
132.5	110.5	28.7	55.3	50.2	134.2
667.8	104.7	303.3	189.1	186.7	679.1
93.0	70.2	45.5	10.9	36.2	92.6
78.3	94.9	24.4	19.9	32.0	76.3
16.5	55.0	12.7	0.4	4.9	18.0
69.8	99.7	24.4	18.6	29.9	72.9
55.5	82.2	18.9	9.3	25.7	53.9
73.7	92.1	22.1	16.3	34.4	72.8
386.8	83.6	148.0	75.4	163.1	386.5
32.7	81.8	11.4	1.8	20.0	33.2
81.3	87.3	28.0	17.0	37.9	82.9
11.5	65.7	5.0	0.5	7.2	12.7
42.6	142.0	12.8	13.2	17.0	43.0
15.4	102.7	3.7	2.7	10.3	16.7
183.5	94.1	60.9	35.2	92.4	188.5

94년 국내 PS수급은 생산 79만6000톤, 직수출 29만1500톤, 수입 2만3500톤, 국내수요 53만3500톤인 것

으로 나타났다.
PS가격은 94년초 톤당 FOB기준 650달러였던 것이 4월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9월 1050달러, 10월초 1300달러로 2배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11월부터 점차 약세로 전환, 95년초까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세계 스틸렌계 제품 수급전망 (단위: 1000M/T)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SM	세계	생산능력	16,217	16,647	17,557	18,281	19,798	20,518
		생 산	14,038	14,168	14,879	15,625	16,483	17,254
		수 요	13,837	14,215	14,879	15,625	16,483	17,254
	아시아	생산능력	4,339	4,454	4,704	5,288	6,250	6,920
		생 산	4,046	4,113	4,305	4,625	5,191	5,772
		수 요	4,661	4,963	5,309	5,677	6,103	6,512
		과 부 족	-615	-850	-1,004	-1,052	-912	-740
PS	세계	생산능력	11,756	12,282	12,765	13,261	13,777	14,296
		생 산	9,265	9,542	10,037	10,677	11,294	11,906
		수 요	9,305	9,499	10,037	10,677	11,294	11,906
	아시아	생산능력	3,764	4,161	4,503	4,962	5,388	5,592
		생 산	3,123	3,280	3,517	3,899	4,181	4,506
		수 요	3,183	3,234	3,555	3,931	4,281	4,623
		과 부 족	-60	46	-38	-32	-100	-117
ABS	세계	생산능력	4,221	4,414	4,533	4,853	5,046	5,141
		생 산	3,102	3,138	3,295	3,560	8,321	4,063
		수 요	3,066	3,106	3,295	3,560	3,821	4,063
	아시아	생산능력	2,184	2,351	2,468	2,741	2,899	2,979
		생 산	1,678	1,712	1,786	1,995	2,189	2,357
		수 요	1,590	1,631	1,754	1,949	2,140	2,314
		과 부 족	88	81	32	46	49	43

국내 POM 수급현황 (단위 : M/T)

구 분		1992	1993	1994	1995(전망)
수요	내수	17,000	17,000	19,000	21,000
	수출	12,000	10,000	12,000	13,800
	계	29,000	27,000	31,000	34,800
공급	생산	26,500	28,000	30,000	33,500
	수입	3,500	3,100	3,100	2,900
	계	30,000	31,000	3,310	36,400

국내 PC 공급현황 (단위 : M/T)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전망)
GE	6,000	7,000	8,000	9,000	9,900
삼양사	100	1,000	6,000	7,000	7,800
기타	3,900	4,000	2,000	2,000	2,100
합 계	10,000	12,000	16,000	18,000	19,800

현재 가격은 GPPS 내수가격이 톤당 119만원, 로컬가격이 1300 달러이고 HIPS는 내수가격이 톤당 129만원, 로컬가격이 1390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95년에도 PS는 생산이 94년보다 8.5% 늘어난 86만4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수요는 7.8% 증가한 57만5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94년 세계 수요는 1003만7000톤으로 93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95년에는 94년보다 6.3% 증가한 1067만7000톤의 수요가 예상된다.
ABS는 93년 18만3900톤의 수요에서 94년에는 21만3000톤으로 15.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95년에는 23만2000톤으로 94년대비 8.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수요는 94년 329만5000톤에서 95년에는 8.0% 증가한 356 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PS는 94년 국내수요가 20만톤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95년에는 이보다 5~6% 증가한 21만여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4년 국내 EPS 시장은 전자산업의 해외이전과 환경문제로 전자제품 이외의 수요제약으로 포장재용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BT 생산능력 현황 (단위 : M/T)

구 분	생산능력	생산개시	비 고
LG화학	6,000	1984	자체기술
동양나이론	3,000	1985	Karl Fisher
코오롱	3,000	1984	Rhone Poulenc
삼양사	3,000	1989	Mitsubish
SKI	3,000	1986	-
제일합섬	3,000	1986	-
고합악조	1,500	1989	Akzo
합 계	22,500	-	-

주) LG화학과삼양사를제외한기업 PET겸용

아시아주요국 EP 수요전망 (단위 : M/T)

구 분	PA6	PA66	PBT	PET
대 만	49,000	26,400	14,700	6,035
한 국	32,400	14,720	12,300	4,500
중 국	34,400	3,280	4,500	450
홍 콩	26,000	7,600	3,700	370
싱 가 폴	2,430	3,920	4,100	385
말레이지아	2,640	5,300	1,175	195
인도네시아	7,940	880	240	100
타 이	2,115	1,060	1,620	195

주) 1997년기준 자료) ECN

세계 EP 수요현황 (단위 : M/T)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전망)
PC	210,000	227,000	245,000	265,000	291,000	320,000
PBT	290,000	307,000	325,000	344,000	368,000	393,000
POM	498,000	536,000	579,000	626,000	676,000	730,000
M P P	284,000	304,000	326,000	350,000	374,000	400,000
O	444,000	481,000	523,000	570,000	615,000	664,000
PA6	410,000	481,000	523,000	570,000	621,000	676,000

그러나 단열재에서는 시공상의 문제로 Glass Wool과 암면 등이 대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 EPS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PS는 포장재용이 94년초 톤당 95만~100만원선에서 현재는 13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EPS시장은 SM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95년 상반기에는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스틸렌계 수지의 주원료인 SM의 생산은 87년 20만9000톤, 88년 22만4000톤, 89년 24만4000톤으로 89년까지 20만톤대를 유지해오다 90년 44만톤, 91년 79만톤, 92년 122만톤, 93년 124만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93년 수급현황을 보면 내수가 103만9000톤이었으며 수입은 13만1000톤, 수출은 35만톤으로 나타났다. 또 94년 생산은 2.6% 증가한 127만6000톤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은 8.4% 늘어난 12만톤, 수출은 27.7% 늘어난 25만3000톤으로 추정된다. 스틸렌계 수지의 수요산업은 전기·전자, 포장을 비롯하여 자동차, Tape, 잡화 등으로 전기·전자가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산업이 20.5%, 자동차가 2.3%, 그리고 기타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산업 호황 힘입어 전기·전자용 PS 수요 7.1% 증가

국내 전기·전자에 사용된 PS수지는 91년 9만 2400톤, 92년 9만 7000 여톤, 93년 9만9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국내 수요는 93년대비 7.1% 증가한 10만6000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94년 가정용 전기·전자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국내경기의 호전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국내 전자산업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호황을 구가했다.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은 94년 10월말 현재 255 억달러로 94년말까지 312억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돼 93년보다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판매는 94년 9월말 현재 6조1259 억원으로 93년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컬러TV, VC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주요 가전제품의 신제품개발이 어느해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94년초까지 불투명했던 대형제품의 내수와 수출경기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10월말까지의 수출실적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93년의 28.0%에 비해 그 비중이 5.5%포인트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판매도 94년 9월말 현재 6조1259억원으로 93년동기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 생산액은 9월말 현재 26조5000여억원으로 93년에 비해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94년초 전자업계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의 수출이 88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세계경기의 회복과 엔고의 영향, 그리고 기술개발 등 국내기업들의 자구노력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경기회복과 엔고가 국내 전자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와 중국·동남아산 저가품의 미국시장 공략 등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세탁기 수출이 9월까지 93년동기대비 48.5%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여 94년 10월말 현재 93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59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내수에서는 26~93%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수출에서는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함께 94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선풍기 등 가전제품의 호황도 내수 호조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전화기 시장도 크게 확대되면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판매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품은 9월까지 482억원어치를 판매해 93년동기대비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10월까지 2억3300만달러를 기록해 무려 12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전기·전자 부문에서의 PS수요는 93년동기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S 전체수요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기·전자분야에서의 이러한 PS사용 증가는 가전3사를 위주로 형성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 업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에도 9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전기·전자분야에서는 수요가 1%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Tape 분야에서의 PS수지 사용량은 91년 7만3400톤, 92년 7만4500톤, 93년 7만4000톤으로 수요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93년에는 오히려 92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Tape분야의 PS수요는 93년대비 성장률 0%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관련기업들이 Tape의 직접 생산보다는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5년에도 Tape부문에서의 PS수지 사용량은 반제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Sheet에 사용되고 있는 PS는 PS 전체수요의 약 17%정도이며 92년 이후에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et 부문의 94년 PS사용량은 5만1000여톤으로 93년대비 약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5년 Sheet부문 PS수지 사용량은 94년대비 약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기·전자쪽을 포함한 수요증가와 일회용품 위주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4년 잡화부문 PS수요는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7.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잡화 및 기타분야에 사용된 PS사용량은 4만3000톤으로 93년 의 4만톤보다 약 7.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PS사용량중 잡화 및 기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4년 요쿠르트분야에 사용된 PS사용량은 2만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쿠르트부문 PS수지 사용량은 91년 1만8400톤, 92년 1만 8600 톤에서 93년 1만9000톤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자동차산업 성장률 둔화될 듯
자동차부문에서는 주로 ABS수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는 91년 1만1490톤, 92년 1만3700톤, 93년 1만5200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1대당 소요되는 ABS양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승용차는 10Kg, 상용차는 2~3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부분은 Instrument·Panel, Back miller, Grove box, Console box, 오디오 Panel, Column Cover,

Handle, Combination power 스위치, Desposit box, Cluster facia 등이며 차종별·기업별로 복합PP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상반기 자동차산업은 93년동기대비 16.8% 증가한 113만4320대를 생산했으며 하반기에는 93년 동기대비 14.4% 증가한 123만6000대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4년 전체로는 93년대비 15.6% 늘어난 237만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승용차 생산은 약 185만대, 상용차 생산은 53만여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95년 자동차산업은 내수부문에서 94년 상반기의 대기수요가 하반기에 거의 소화될 것으로 보여 증가율 9.1% 정도로 94년에 비해 성장률이 1.6%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준 엔고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95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가세는 94년의 23.0%보다 크게 둔화된 17%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산증가율도 13%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 100억달러대 돌파
세계적인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94년 국내 반도체산업은 대폭 성장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은 94년 10월말 현재 수출액이 93년대비 55.1% 증가한 101억달러를 기록, 단일품목으로는 최초로 100 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의 수요증가와 DRAM 등 기억소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엔고에 따른 일본기업들에 대한 가격경쟁력 우위로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4년 국내 반도체 생산은 93년대비 59.1% 증가한 14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수출은 93년대비 58.2% 증가한 12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5년 국내 반도체산업은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 16M DRAM 분야에서 30% 이상의 생산능력 증대가 기대돼 일본·미국 등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95년 국내 반도체산업은 17~19%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 반도체 생산은 94년대비 17.9% 증가한 16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은 94년대비 18.1% 늘어난 150 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5년 국내 반도체산업은 94년에 이은 국제금리의 상승과 지속적인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전자산업이 침체국면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은 EP산업 도약의 한해 될 듯
국내 EP산업은 주용도인 자동차산업의 호황으로 90년대들어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품목별 수급에 있어서는 PBT 등 일부제품이 공급과잉이고, PC 등은 공급부족을 나타내고 있지만 레진생산기업에서 인식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국내 EP산업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생산기업과 성형업계에서 EP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아직 선진국의 기술수준에는 뒤떨어지고 있으나 빠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90년대 후반에는 T/S와 응용기술력 등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5대 범용EP의 동향을 살펴보면, PC(Poly Carbonate)는 94년 수요활기로 극심한 공급부족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PC는 PC/ABS, PC/PBT Alloy화의 활성화에 편승, 93년이후 큰폭의 수요신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94년에는 93년대비 30%이상 증가한 2만톤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5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공급은 삼양화성에서 생산공급하고 있고, G.E에서 생산·수입판매하고 있으나 94년 극심한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호석유 등 일부기업에서 신규투자를 활발히 검토하고 있어 95년 PC시장은 신규투자 성사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몇몇 기업에서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술선확보가 여의치 않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BT(Polybutylene Terephtalate)는 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내수량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생산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C/PBT 등 Alloy화에 따른 증가에도 불구 PBT업계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급기업의 난립은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95년에는 LG화학의 판매강화로 인한 국내시장의 점유율 변동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EP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자 증설 등을 통해 사업을 대폭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PBT시장 점유율은 LG화학 45%, GE 30%, 코오롱 8%, 동양나이론 5%, 기타 12%를 차지하고 있다. PBT 내수량은 93년 1만6000톤, 94년 1만8000톤에서 95년에는 2만톤이 예상되고 있다.
POM(Polyacetal)은 범용EP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요증가율을 나타냈으나 94년을 계기로 높은 수요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POM 수요는 자동차 및 가전시황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이들 수요산업의 신장에도 불구 관련기업에서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컴팩트화를 추진해 큰폭의 수요 신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 Base Polymer 자체로 사용되며 다른 제품과의 Alloy화가 어렵고, 내후성이 미흡, 수요창출에 한계를 보인 것도 수요미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내 생산기업인 KEP가 2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내수 및 수출에 주력하고 있어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LG화학은 1만톤정도 생산했으나 증설로 인해 95년에는 1만5000톤 이상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LG화학은 내수공급보다 수출이 많은데 95년에도 계속해서 수출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MPPO(Modified Polyphenylene Oxide)는 91년이후 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가전제품의 난연규제가 실시되지 않아 수요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ABS 등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해왔다.
또 PPO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도 MPPO의 전반적인 침체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MPPO 내수량은 94년기준 7000여톤에 머물고 있는데 95년에도 소폭 신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은 효성바스프가 공급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80여톤에 머물고 있으며 GE가 월 250~300여톤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화종합화학이 신규참여함으로써 95년 한화의 실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PPO는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나 자동차나 전기·전자업계에서 신규수요가 이루어지면 큰폭의 신장도 예상되고 있다.
PA(Polyamide)는 N6에서 내열성이 우수한 N66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N6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N6의 94년 내수는 93년대비 10% 증가한 1만5000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각 생산기업들의 신규수요 창출에 힘입어 95년에도 10% 내외의 수요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N6시장 점유율은 동양나이론 50%, 코오롱 31%, 럭키얼라이드 14%, 고합악조 7%, 기타 8%를 나타내고 있다.
N66는 94년기준 1만여톤의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N6를 대체하고 있어 수요신장이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66는 국내공급 한계로 수요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용 52%, 전기·전자 26%, 기타분야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전분야에 걸쳐 수요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 EP업계는 범용EP의 활성화속에 특수EP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95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선진기업들에 비해 비교적 낙후돼 있는 T/S와 응용기술력 등에 있어서도 업계의 자구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95년 국내 EP시장은 기술개발 및 시장상황 등에 있어서 큰 활기를 띨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5/1/16>